



# 양계안테나

김동진 본지 편집장

## 채란업 불황 장기화 돌입 자조금 사업 동참 등으로 불황 탈출

채란업 불황이 장기화 될 것으로 예견되면서 본회에서는 노계군의 조기도태, 산란실용계 적정수 입식, 강제환우 자제라는 슬로건하에 농가 계도에 들어갔다.

사실 이 같은 우려는 2005년부터 예견된 상황이었다. 2004년 하반기부터 1년 넘게 이어진 호황으로 사육수수 증가라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를 증명하듯 지난 2006년 12월 현재 산란계 사육수수가 5천7백만수라는 사상 초유의 사육증가를 보여주었다. 실제로 지난해 입식된 산란계의 경우 42만8천수로 전년에 비해 2% 증가되었지만 문제는 금년 3/4분기 이후 산란실용계 생산에 집중적으로 영향을 미칠 지난해 4/4분기 종계입식수수가 14만수로 전년에 비해 무려 42.5%의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년 6월 현재 5,650만수로 다소 줄긴 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가 많은 숫자이고 성계 기준으로 볼때 적정사육수수로 추정하는 3천6백만수 보다 19%가 많은 4천3백만수의 성계 사육수수를 보여주어 특단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채란업 불황은 좀처럼 벗어나기 힘들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여름철 비수기를 맞이하여 유통상황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집하시설은 물론 냉장창고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30도를 웃도는 한여름 생산증가에 따른 유통의 문제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난가하락으로 일시에 몰려드는 노계물량으로 인해 노계가격도 100원대의 낮은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일시에 몰려드는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노계도계장이 부족 한 것도 채란업계의 한 문제점으로 지적해 볼 수 있다. 과거에는 긴급수매라든지 노계도태 지원금 등이 정부로부터 지원되었으나 이제는 자율조절에 맡기고 있어 이 또한 기대하기 힘든 것이 현 실정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자조금 사업이 정착되어야 한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최근 의무자조금 실시가 지연되고 있지만 불황을 조기 탈출하기 위해 약 6억원 규모(자조금 3억원, 정부보조 3억원)의 사업규모로 금년 임의 자조금 사업에 불씨를 당겼다. 이번 사업은 종계업계에서 1억5천만원을 자조금으로 지원키로 하는 등 자조금사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 산란계를 운영하는 농가는 수당 10원씩의 자조금을 납부하여 산란계자조금의 성공적인 정착은 물론 채란업 불황을 조기에 탈출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나가자.

## 국제 옥수수 가격 상승 막을 수 없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마련 시급

최근 사료의 주원료로 공급되는 옥수수가 바이오에탄올의 원료로 사용되면서 사료업계 및 축산업계가 사료가격 상승으로 비상이 걸려있는 상태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 사료원료가격 하락은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3/4분기 이후 국내 사료가격은 지금까지 3차례(23%) 인상되면서 양계산물 생산비에 큰 부담을 가져오고 있다. 본지는 2006년 4월호를 통해 이미 '고유가 시대 양계업 생존전략'으로 옥수수의 에탄올 사용에 따른 사료원료 부족에 대한 우려의 내용을 특집으로 다룬 바 있다. 당시만 해도 미국에서 생산되는 옥수수의 14.4%가 에탄올로 사용되어지고 있었으며, 이 같은 추세는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견되었다. 이러한 것이 이미 지난해 말부터 국제적인 이슈가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에탄올에 대한 마스터 플랜들이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세계 최대 옥수수 생산국인 미국의 경우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금년 신년연설에서 "에탄올 등 대체에너지 사용 확대와 에너지 절감을 통해 2017년까지 미국의 석유 소비량을 20% 감축할 것"이라고 발표할 정도로 정부의 강력한 정책으로 에탄올 생산에 임하고 있으며, 유럽 연합(EU)도 2010년까지 수송연료의 5.75%를 에탄올 등 바이오연료로 대체하고 2030년에는 이 비율을 25%까지 높인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국내에도 최근 바이오에탄올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사료원료의 95% 이상을 수입원료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사료업계가 국제적인 흐름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옥수수를 수출하는 곳은 미국, 호주, 유럽을 들 수 있으며, 나머지 국가들은 자급위주로 활용되고 있다. 국내 최대 수입국인 미국은 평년에 6천만톤 가까이 옥수수를 생산하고 있으면서도 재고율이 16~18%에 달했지만, 지난해의 경우 재고율이 6~7%로 크게 줄어들면서 국제 옥수수 가격 상승을 주도하였다. C&F가격으로 톤당 120불정도로 국내에 도착하던 것이 이제는 220불까지 상승하였고 더 이상의 하락은 소원해 보인다.

사료업계에서는 자구책으로 에탄올을 생산하고 남은 찌꺼기의 일종인 옥수수박이나 팜원료 등을 활용하는 방안 등 대체제를 찾고 있다. 또한 동남아 지역에 사료하치장을 확보하여 곡물을 수입하는 부분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는 달러에 대한 원화환율이 감소하여 사료회사들이 큰 부담이 없다고 하지만 과거처럼 환율이 상승될 경우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피해는 생산자들에게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사료업계와 양계업계가

나서 자구책마련에 나서지 않을 경우 양계업계의 앞날은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본다.

## 양계장 적정 사육면적 기준 보완 필요성 제기 국내 사육환경을 충분히 고려해야

최근 산란계 케이지 사용에 대한 규제와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유기농 축산물, 무항생제 축산물 등 웰빙식품이 각광을 받고 있는 추세에 발맞추어 대형 케이지를 사육하는 산란계 농장에서도 사육수수를 줄여 무항생제의 기준을 통과, 무항생제 계란을 생산하는 농장들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

동물복지 차원에서 무조건 유럽식을 따라가려는 동물복지운동가들도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금년부터 정부에서는 적정사육면적을 규정하여 이를 어길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사육면적에 대한 규정을 다양한 사육형태에 맞추기에는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육계의 경우 무창은 수당 0.046m<sup>2</sup>(평당 72수), 유창은 0.066m<sup>2</sup>(평당 50수)를 사육하도록 되어 있으나 반무창의 형태는 규정이 없어 판단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산란계 케이지의 경우에도 0.042m<sup>2</sup>(평당 78수)로 규정되면서 일부에서는 바닥면적이 아닌 전체면적을 적용하여 생산자와 마찰이 빚어지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국의 경우는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여 단계적으로 출하하면서 활동공간을 넓게 해주면서 면적에 대한 제약을 받지 않도록 사육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큰닭 위주의 소비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를 답습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즉 무조건 유럽식을 답습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고 국내실정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제한된 면적에 집약식 사육형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케이지를 제한하고 사육면적을 늘려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것이다.

최근 동물복지와 관련하여 국내케이지 사육 금지를 주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유럽이 2012년 케이지 철폐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케이지에서 양계를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복지케이지라는 새로운 형태의 케이지를 제작하여 사용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을 읽고 상업적으로 케이지 판매전략을 세워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유럽의 경우 산란계 계사 형태는 크게 케이지, 평사(Barn, Deep litter), 방사(Free Range), 유기사(Organic) 4종류로 이루어지고 있다. 케이지 사육 비율이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100% 케이지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독일 등에서는 방사닭을 줄여가는 추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양계산업 실정을 다시 한번 재고해 보고, 유럽식이 아닌 사육면적이나 기준 등을 설정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양계**